

P10. 현대 여자 속옷에 관한 연구

이 연수*, 김 선화

순천대학교

인간은 복식을 통해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내면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복식의 한 아이템으로서의 속옷은 인간의 피부위에 직접 착용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겉옷의 가시적인 특징 때문에 그동안 주로 겉옷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겉옷과 속옷이 언제 구분되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성의 속옷이 팬티와 브래지어로 대변된지도 실상은 얼마되지 않았고, 70년대 빨간 속옷의 시대를 거쳐 80년대에는 예쁜 레이스가 달린 란제리를 선호하는 여성이 급증하였고 90년대 들어 패션시장은 겉옷과 속옷의 구분이 희미해져갈 정도로 속옷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품질과 디자인, 소재, 기능도 아웃웨어만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위생적이고 깨끗하면 된다는 예전의 속옷의 개념이 좀 더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기능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속옷을 그냥 안입는 옷이 아니라 겉옷과 더불어 대등하게 패션의 커다란 흐름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시킴으로써 시대에 따라 형성되어지는 속옷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나뉘어지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대 여자 속옷은 크게 메리야스, 파운데이션, 란제리로 나뉘어지는데, 메리야스는 체온조절과 조건위생의 목적으로 착용되는 속옷을 말하며, 슈미즈, 콤비네이션, 블루머, 드로오즈 등이 있다.
2. 파운데이션은 체형교정의 목적으로 착용되며 브래지어, 웨이스트 니퍼, 가터벨트, 콜셋, 거들, 올인원, 바디수트 등이 있다.
3. 란제리는 속옷중에 가장 위에 입는 것으로 겉옷과의 접촉감을 좋게 하며 겉옷의 실루엣을 살리고 장식을 목적으로 착용하며, 슬립, 원팀, 팬티, 란쥬, 홈란제리 등이 있다.